

地方化·國際化시대를 이끄는 慶南大

朴 在 圭

(慶南大 總長)

1. 世界 跳躍의 기를 마련

1) 반세기 역사의 慶南大學校

1천 년 신라·가야의 오랜 전통이 어려있는 마산의 월영언덕. 이 곳에 자리잡아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대학은 민족해방 이듬해인 '46년 12월 서울에서 국민대학관으로 발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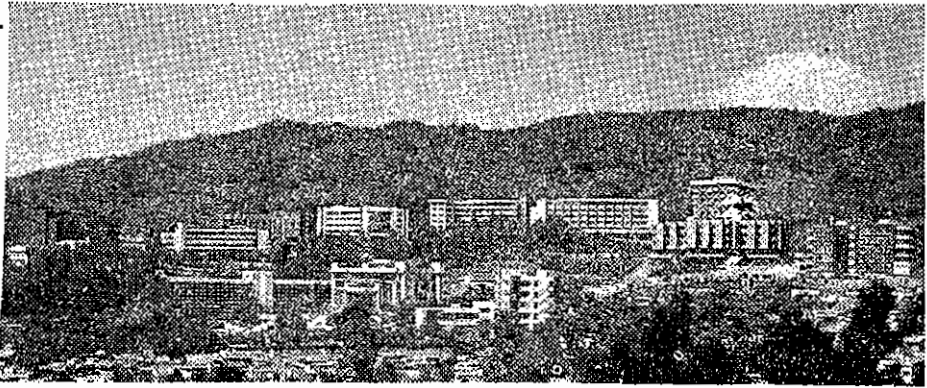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申翼熙 선생을 초대 학장으로 모신 가운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교한 우리 대학이 지금의 명문 지방사학으로 기반을 닦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대학 발전의 기초를 굳히기도 전인 '50년 6·25가 터짐으로써 제1회 졸업생을 피난지 부산 감천동에 마련된 임시 교사에서 배출하는 등의 역경을 겪은 것이다. 그후 '52년 3월에 校舍를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합천의 해인사 경내로 이전하면서 해인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다. 휴전 후 해인대학은 진주시 강남동으로 교사를 옮겼다가 '56년 4월 경남의 중심 도시였던 마산으로 다시 이전, 기틀을 다져나가기 시작한다.

당시 경남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마산은 향토의 학문과

문화적 발전의 중심점이 될 만한 상아탑을 갖지 못하였던 관계로 본교가 마산으로 이전한 것은 하나의 역사적 필연이라 하겠다. 마산 시민들 역시 대학의 이전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리하여 본교는 '61년 校名을 마산대학으로 변경하게 되고, 마산의 유지들은 본교 강당 및 도서관 건축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여는 등 마산 시민의 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본교는 같은 해 11월 대학정비령에 의해 부득이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휴면기에 들어가 고 마는 비운을 맞게 된다.

이렇게 되자 시민 및 각계 각층에서는 중부 경남 유일의 최고 학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해 '64년 본교를 부활시키기에 이른다. 이렇듯 본교는 역사의 초창기부터 시민들과 끊임없이 끊임 수 없는 유대 관계를 가지며 발전하게 된다. 마산대학으로 부활된 이후 도서관과 대강당을 준공하는 등 교사 건설 사업을 왕성하게 펼쳐 나갔다. 당시 학교 운영권을 맡고 있던 삼양학원은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現 한마학원의 전신인 경남학원으로 운영권을 넘김으로써 본교는 새로운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70년 2월 본교의 운영권을 맡게 된 경남학



경남대 전경

원은 대학 본관을 준공함과 동시에 중등교원 양성소를 설치하고 병설로 산업전문학교까지 설립하는 등 대학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주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체제를 정비하면서 단지 마산의 대학에 머무는 상아탑이 아니라 명실공히 경남 최고의 학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71년 12월 교명을 경남대학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후 '73년 1월 대학내 경영대학원까지 설립한 본교는 大종합학원으로서의 용지를 펴기 위해 보다 넓은 새로운 교지를 찾아 나서 통일신라 말기의 대석학 최치원 선생이 학문을 닦던 마산시 월영동에 그 터전을 잡고, '73년 11월 신축 교사 준공식과 함께 대학의 모든 행정 및 강의실을 옮겨왔다.

아울러 '81년 7월 본교는 경남 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학문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본교 초대 총장 故尹泰林 박사는 종합대학에 걸맞는 기구의 편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속기관과 부설 연구소 등을 정비해 학문 연구의 산실이 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전력을 다했다.

종합대학으로 체제가 구축되던 시기에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 본인은 국내 최대의 학생복지회관인 汗馬館을 완공하고 7호관, 예술관, 9호관 등을 준공하는 등 대학의 양적 발전을 기하는 동시에 대학 내의 민주적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학교 행정에 있어서 예산·결산 등 재정을 완전 공개하고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병의회, 대학발전협의회를 운영해 학교 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고 있

며, 도내 최초로 총장 직접 선거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가장 민주적인 대학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우리 대학이 이렇듯 발전을 해나가는 것과 발맞추어 학과와 학생 수도 계속 증가해 왔다. 현 한마학원이 본교 운영권을 인수하던 '70년의 총 6개 학과, 모집 정원 130명에 불과하던 규모가 현재는 6개 단과대학, 1개 야간강좌학부, 47개 학과에 모집 정원 3,330명이라는 거대한 캠퍼스로 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행정대학원 등 5개 대학원을 갖추고 있어 1만 5천여 명의 재학생들이 학문에 열중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다.

2) 世界로 跳躍하는 慶南大學校

우리 대학은 그동안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왔다. 세계의 유명한 대학, 연구소들과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술회의, 공동연구 등 빈번한 학문적 접촉을 가짐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다. '84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이후 노스 플로리다대학교, 버지니아 컴던웰스대학교, 웨어레이 디킨슨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만의 담강대학, 덴마크의 알보그대학, 중국의 연변대학, 일본의 경도대학 등과 교수 교류 및 학생 교류, 연구자료 교환, 공동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학술회의와 함께 본교생들이 매년 하계 방학중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國際化 시대에 필요한 어학 실력을 쌓는 데 만반의 배려를 다하고 있다.

특히 본교는 국내 학계에서는 최초로 소련 극동 지역의 대학, 연구소들과 학술교류의 물꼬를 터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89년 3월 소련의 하바로프스크교육대학, 블라디보스토르크 극동주립대학, 소련 과학원 산하 동양학연구소 등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 학문을 보다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술교류 협정 체결 후 매년 본교 교수 및 경남권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소련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본교 노어노문학과에서는 소련의 학자가 직접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교에서도 소련 블라디보스토르크 극동주립대학에 본교 졸업생을 유학하게 하여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소련 대학들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련 극동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소련내 한민족의 생활상과 역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2. 人材養成과 활발한 研究活動

1) 地方化時代를 이끄는 指導者 배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본교는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지도자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회 의원 본포도만 보아도 우리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경상남도의회에 14명의 경남대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으며, 마산시의회에 이성근 의장을 비롯한 16명, 진주시의회에 7명, 창원시의회에 7명이 진출하는 등 경남 도·시·군의회에 총 64명의 본교 출신들이 당선·선출됨으로써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실시된 중등교원 임용고사 자격시험에서 본교생들이 도내 최고의 합격률을 보임으로써 학문의 질적 우수성을 과시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 성과 중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 7개년간 도내 대학들

과 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한번도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본교가 갖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본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단 교육 기자재를 이용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으며 1기 수료생들을 배출했다. 또한 도내 최초로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띠까나'를 공연하여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던 음악교육과에서는 강미자 교수의 독창회와 在美 피아니스트 한동일씨의 초청연주회에 이어 백건우씨의 피아노 독주회도 계획하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술교육과, 산업미술학과도 우수한 작품들을 수시로 전시하여 도내 미술계에 활력을 심어주고 있으며, 그외 학과와 연구소에서는 지역 기업체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附設研究所의 學問的 成就

우리 대학의 부설 연구소들은 인근의 창원공업단지와 마산수출자유지역내 기업체들과의 산학협동 차원에서 많은 연구물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오염문제 및 노사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 지역 발전의 기초로 삼고 있다. 지역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못지 않게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학문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교에는 극동문제연구소를 비롯한 15개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그 현황 및 활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극동문제연구소

극동문제연구소는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73년 4월 재미 아시아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워싱턴에서 '70년대 한국외교'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가진 데 이어 '74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 '76년 10월에는 '80년대 동남아시아와 그 주변국', '79년 '개발도상국의 핵확산에 대한 전망'이라는 국제 학술회의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동남아 지역 연구의 최고 연구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84년 사회과학 분야 최우수 연구소로 인정 받은 극동문제연구소는 '89년 10월 쿠진스키, 윌러스타인 박사 등 소련·동독을 비롯한 세계의 내로라 하는 맑스주의 연구의 최고 학자들이 참석한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라는 국제 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세계의 언론과 학계로부터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련 과학아카데미 내의 동양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소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학문적 성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영문 정기간행물인 「Asian Perspective」와 국문 정기간행물인 「한국과 국제정치」를 발간하여 세계 30여 개 국에 배포함으로써 학문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여 종이 넘는 연구총서, 1백여 회에 달하는 국내·외 학술회의, 해외학자 초빙연구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정부 부문의 연구 단체를 제외하고는 규모나 실적 면에서 국내 제일의 연구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활동 외에도 본교 재학생들에게는 사회과학을 이해시키고 그 연구 기법을 가르치기 위한 단기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한마특강'을 통해 최신 학문 정보를 소개하기도 해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② 학생생활연구소

본교 학생들의 여러 문제에 관한 연구와 생활지도 및 상담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생생활연구소는 매년 신입생들에 대한 상담 및 조사활동을 펼쳐 정서적 안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학생생활연구」, 「교양도서안내」, 「학습의 효율화 방법」, 「대학발전 세미나 논총」 등을 발간해 오고 있다.

③ 산업경영연구소

'69년 4월에 설립된 산업경영연구소는 '산업경제', '마산권 유통사업개발에 관한 연구', '기업의 연구개발 시스템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중소기업 체질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하여 도내 기업체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삼미종합특수강, 대우중공업, 기아기공, 경남에너지, 효성중공업 등 창원공단과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주 업체 및 마산 인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④ 가라문화연구소

신라·가야 시대의 문화 유적지의 발굴 및 연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가라문화연구소는 매년 경남지역의 방언, 민요, 전설, 지명 등을 수집·발표하여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⑤ 지역개발연구소

우리 지역사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실천을 통해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개발연구소는 현재 2천년대의 마산권 도시개발 기본방향, 지방도시권 개발모형, 마산권 인구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에 여념이 없다.

⑥ 환경연구소

'7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한 급격한 산업발달의 추세는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대두시켰다. 이렇게 되자 본교는 '78년 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마산만의 오염 실태와 어폐류, 해저토 등의 중금속 조사, 마산 및 창원 공업지역 하천수 오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공해 업무 담당관을 위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 연안해역 심포지움을 주최해 마산만의 수질 오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

⑦ 노동복지연구소

마산·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산업사회의 특성에 입각하여 설립된 노동복지연구소는 노동문제 및 실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분석으로 노사 관계의 민주화와 산업평화 및 복지정책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⑧ 공업기술연구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공업기술적 분야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연구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공업기술연구소는 연구 논문집을 정기적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건축설계 검토, 토목구조물 안전도 진단, 전기설비 및 배선도 검토, 전산화 업무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공업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를 도내 관공서 및 국내 기업체들로부터 위탁·의뢰받아 수행하고 있다.

⑨ 법학연구소

매년 학술 세미나 및 국내·외 학자들의 초청 강연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문제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해양오염 방지와 피해구제',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체계적·통합적 연구' 등 지역민들을 위한 연구물을 내놓음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⑩ 일본문제연구소

'88년 3월에 설치된 이후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조사분석'이라는 연구물을 내놓음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본문제연구소는 일본의 대학, 연구소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다방면에 걸친 일본 소개 책자들을 발간하고 있다.

⑪ 사회과학연구소

지난 해 지역 언론사와 공동으로 「경남도민의 식조사 보고서 및 자료집」을 발간한 사회과학연구소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사회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조명·검토·분석하고 있다. 또한 학술회의와 초청 특강을 꾸준히 실시함과 동시에 '젊은 사회과학도를 위한 학술발표회'를 가져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자세를 갖추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⑫ 기초과학연구소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초과학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명제 하에 자연과학의 논리적 표현의 기초가 되는 수리학 분야, 재료공학의 기초인 물성 분야, 생명과학인 분자생물학 및 유전공학 분야 등을 집중 연구·분석하고 있다.

⑬ 인문과학연구소

한국어 문학 및 외국어 문학의 비교 연구, 철학 및 사학 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문과학연구소는 중국 연변대학의 고적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수 및 연구자료 교환,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⑭ 교육문제연구소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역교육 기초조사, 교과교육 및 교수방법, 대학 교육문제 등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교사

중심 교육민주화 운동'이라는 연구물을 발표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⑮ 신소재연구소

첨단 신소재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해에 설립된 신소재연구소는 탄탄한 산학협동 체제를 바탕으로 신소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고급 기술 축적에 전력을 쏟고 있다.

3. 地方化·國際化에 걸맞는 大學 될터

우리 경남대학교는 훌륭한 학문적 성과와 지역사회에서 닦은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당당히 서기 위하여 2천년대까지의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마련,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대학 조직의 개편은 물론 대학 행정에 있어서 능력을 기하고 현대식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대학 캠퍼스의 전면적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을 학문적 성격에 맞게 새로 개편하고 첨단과학을 다루는 학과를 신설하여 전 학문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우수한 교수진을 계속 확충하고 있으며, 도서관 업무의 완전 전산화 및 학교 행정의 전산화를 실시하고 시청각 실습실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진작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의 장학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인재양성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마장학회를 설립하여 재학생들이 학비에 곤란을 받지 않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곧 완공될 사회관이 건립되는 즉시 공학관의 건설 사업에 착수할 것이며 학술정보센터, 교육공학센터, 공동기기센터 건설과 아울러 부속공장까지 건립할 계획이어서 장기발전계획이 끝나는 2천년에는 어떠한 학문을 익히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완비하여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미래 일꾼을 배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 체제도 국내 어느 대학보다 가장 민주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대학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이다. ■